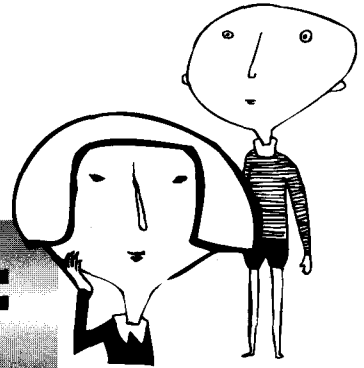


안전사용기준 지켜

소비자 신뢰 받아야



**식생활 패턴 변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농업경쟁력 좌우
라벨 변경사항 즉시 홍보, 소비자도 농약에 대한 올바른 시각 지녀야**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시하는 농자 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의 나라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뚜렷한 사계절때문에 작물을 재배하는 시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의 발생이 많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고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약이 사용되어 왔다. 농약사용은 수확량 증대와 농산물의 품질향상,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감소 등 농업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병해충, 잡초를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유통 농약의 대부분은 유기화학물질로서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농약은 유익성과 위해성을 동시에 갖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농약의 적정사용과 관리 및 안전성 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ECD 국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약사용량은 현재 OECD 가입국가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좁은 국토에서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농작물을 더 많이 심고 식물의 양분이 되는 비료를 사용하고 병해충을 농약으로 방제하는 집약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등록되어 사용중인 농약의 종류도 1970년에 100여종이던 것이 2002년에는 1천여종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농약의 주성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농약 총 생산·출하량은 최근 10여년사이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건강지향적인 사회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바라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갖가지 차별화된 고품질농산물이 쏟아지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막연한 우려·민감, 농약과 무관

소비자는 농산물 중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농산물 중 농약잔류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하가 되도록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사전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다. 수확한 농산물 중의 농약 잔류량은 수확전 최종 살포일수에 의해 거의 좌우되므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확전 최종살포일을 꼭 지켜야 하며 농약을 수확기에 근접하여 살포할 경우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약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작물 및 농약별로 안전사용기준을 고시하고 농민이 이 기준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막연한 우려까지를 포함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최근까지 농산물중 농약과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소비자들이 농약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몇년사이에 오존살균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상담전화가 폭주한 적이 있다.

「야채나 과일을 담가놓은 물에 오존살균기에서 발

생하는 오존을 투입시키면 농약이 파괴되어 날아감으로 해서 농약을 무독화시킨다」는 업체의 선전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농산물중의 농약잔류를 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사건이다. 더구나 유기농산물에도 실제로 잔류된 농약은 없는지 시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식품중에 약간 이상한 현상이나 냄새가 나도 소비자들은 먼저 농약을 떠올린다. 다음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농약에 민감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때로는 농약과 관련이 없는 것도 농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추를 오차처럼 끓였을 때 거품이나 하얀 이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농약성분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하얀 물질은 정확한 성분은 확실치 않으나 대추내 과육의 단백질과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사과를 구매하였는데 끈적끈적한 이상한 촉감이 드는데...(일부 품종은 오랫동안 저장할 경우 형성된 왁스층이 사과껍질 밖으로 나와 끈적끈적한 촉감을 유발시킬 수 있음) △마늘을 구매하



조계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기술원

여 간 상태에서 노란색이 나거나 찌어놓은 상태에서 초록색으로 변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농약성분은 아닌지...(마늘을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마늘 자체가 얼어 색이 노랗게 변하거나, 마늘 조직내 효소작용 때문에 녹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으로 모두 자연스러운 것임) △포도껍질에 묻은 흰가루는 혹시 농약이 아닌지...(햇빛이 많고 건조한 날이면 포도의 껍질로부터 수분이 날아가고 단맛의 과당이라는 당분이 남아 생기는 현상임) △토란대를 육개장에 넣어 먹었는데 입안이 헐

를 절일 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설혹 농약이 배추에 묻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농약은 씻겨 나간다고 볼 수 있으며 배추를 담는 용기나 양념 등에서 올 수 있다. 또한 작황이 좋지 않을 때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배추를 사용할 경우 아주 독특한 씹쓸한 맛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오래갈 수도 있음).

그러나 정말 농약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며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소비자만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농약을 구입해 사용하는 농민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소에서 과일나무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감의 성장이 멈추고 낙과한 경우 △적용 농약이 없는 작물에 농약판매상에서 권유한 농약



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농약같은 독극물이 든 것은 아닌지...(토란과 토란대에는 개미산같은 유기산이 많은데 이러한 물질들은 아린맛도 나고 독성도 강함) △고구마를 봄에 삶아 먹어 보니 익지 않은 듯하면서 맛이 없고 고구마순이 나지 않는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부패가 된 고구마의 경우 당연히 순이 나지 않고 쓴맛과 이상한 맛이 날 수 밖에 없음) △배추김치를 담았는데 역한 크레졸 냄새가 나는데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이러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일반적으로 배추

을 살포 후 수박이 썩어버린 경우 △적용대상 작물에서 제외된 것을 모르고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상추에 뿌렸다가 출하가 금지되고 불량생산자로 등록된 피해사례 등 다수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오·남용 방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농민들이 작물에 등록농약만을 사용하지 않고 농약판매상의 권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주성분은 같은데도 상표명이 틀리면 다른 농약으로 오인하여 과

량을 살포하거나, 적용대상 작물에서 제외된 것도 모르고 사용하거나, 업체에서도 표시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여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 농민이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품질 농산물, 농업 경쟁력 좌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그렇게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보면 깻잎, 상추, 풋고추 등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소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께서 음식점 등에서 자주 생것으로 먹으면서도 잘 씻었는지, 농약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닌지 가장 우려하는 채소들이다. 시골에 다녀 온 주변사람들이 “깻잎은 농약덩어리라더라. 농민들은 자기네 먹을 것은 따로 재배한다 더라” 하는 근거 없는 풍문을 듣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적합 사례는 우려했던 걱정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깻잎이나 상추, 시금치 등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 많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선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유통기간이 극히 짧아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여도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농산물은 이미 소비된 후라 안전성조사의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출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제·개정하여 농약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농민들이나 농약판매상, 농약업체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홍보하고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생각을 소비자들께서 가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소비자들께서는 우리농산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애용할 것이다.

무역자유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아직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수입농산물보다 품질도 좋고 농약도 적게 친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농민들께서는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농산물만을 애용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법에서 정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때 소비자들께서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먹을 것이며 정부가 발표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자료를 신뢰할 것이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야말로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농약정보**